

## 47. 등장하는 교권국가

2012. 11. 1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겠습니다. 영적 투쟁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중심으로 계속 살피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복음을 교묘하게 대적하는지를 살피려고 했으나 거기까지 말씀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그 사실을 예언을 통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1:21]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21절부터 해석이 우리 재림교회의 해석과 좀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교회 해석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답: 예, 학자들은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역사에 사람으로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전능하신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역사에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교리로 가지고 그것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좀더 정리된 말로 하자면, '기독교의 신은 초역사적인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 세상 역사 안으로 들어와 역사적인 존재와 사건으로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초역사적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활동했고 태초부터 계시던 영원하신 말씀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초역사성과 역사성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의 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유만이 아니고 성경처럼 인간 역사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성경의 종교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서 역사적 종교라는 정의는 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 목사님, 목사님의 해석과 우리교회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역사적 종교 이야기를 하시지요?

답: 역사적 종교라는 말에 대한 나의 인식이 목사님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아, 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사실에 적용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까지 공부한 다니엘서는 2장부터 세상 나라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역사적 예언은 역사

적 사건과 대조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해석 방법 중에 과거적 해석법과 미래적 해석법과 역사 진행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하지요. 우리교회는 역사적 해석법을 따라 해석합니다. 이런 우리교회의 해석법을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교회 해석을 좋아한다고 한 것이지요.

3. 과거적 해석법이나 미래적 해석법이 무엇이지요?

답: 지난 9월 9일에 이 해석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목사님 기억하시지요?(예, 그러나 한 번 더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적 해석법이고, 미래적 해석법은 그것들은 아직도 역사의 미래에 있을 사건들로 해석해야 된다는 해석법이지요. 특히 계시록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교회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어느 역사적 시점부터 역사 진해의 전 과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법이지요. 다시 말하면 70이레 같은 예언이 69이레는 역사적으로 연속적이지만, 마지막 한 이레는 69이레와 역사적 사건의 연속성이 없이 아주 말세에 그 부분이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4. 아, 그 말씀이군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답: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언이 때때로 역사적 연속성을 건너 뛴 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중심에 두고 역사적 사건이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과 관련되지 아니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예언은 믿음과 상관없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 11:20과 21절은 적당한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하는 장명으로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절 말씀을 살폈잖아요. 거기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명령을 내리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호적 하라는 명령으로 구주가 예언된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사건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봤지요. 여기서 구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활동이 역사적 사건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부터 그런 사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교회에서는 21절을 여전히 제정로마의 황위 계승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예언의 성질과 목적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5.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지요.

답: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단11:21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11:21]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

가 평안한 때를 타서 귀홀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문맥을 보면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오를 사람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교회의 입장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외경 마카비 1,2서에는 이 사람이 북방왕, 즉 시리아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대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과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동원하여 그렇게 해석하는데, 8장 8~14절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 구절을 공부할 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목적과 상관없이 역사적 사건을 다니엘서 문장에 맞추는 해석이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듯이 퍼즐이 제자리에 꼭 맞듯이 그렇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맞추고는 그렇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교회에도 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신도 연구자들 중에서 말입니다. 성경 예언의 목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교회에서는 티베리우스가 원래 황위를 이을 자가 아닌데 그 모친이 아구스도의 황후가 되면서 그 모친의 치밀한 계교에 의하여 황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로마군에게 포로된 정복지의 여자였고 미모로 하여 아구스도의 사랑을 입었지요. 그가 포로되어 오면서 전 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 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가 포로된 여자의 아들이니까 비천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6. 그 해석이 틀린 것입니까?

답: 글썽요. 제가 틀렸다고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해석도 괜찮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 22,23절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원후 사건에서 22,23절은 기원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거슬러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진행의 순리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학자가 아니고 그냥 성경 연구하는 학도인데, 저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7. 그러면 목사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주의 구원사업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때, 거기 그 위를 이을 자를 아구스도가 죽은 후에 바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로마의 황권을 이을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구스도 때에 구주께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구원의 기별을 증거할 하나님의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분노하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핍박의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바로 로마 황제들을 충동하여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구원의 기별은 더 힘 있게 더 많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술을 달리 합니다. 전혀 황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존재를 평안 때에 귀홀로 로마의 황위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교권로마이지

요. 정말 시저와 아구스도 등에 의하여 견고한 제국이 된 로마도 역사가 흐르면서 수명을 다했을 때 어지러운 정국에 전쟁 없이 슬그머니 궤홀로 로마의 황위를 이은 존재에 대한 예언이 21절의 예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궤홀이라는 말은 감언이설, 또는 아첨이라는 뜻인데, 공동번역에는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나라의 영광을 저에게 주지 아니할 것인데 궤홀로 나라를 얻었다고 예언합니다. 교권로마가 로마제국의 위를 차지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권세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에 잘 맞고 문장 전체의 흐름에도 잘 맞는다는 말입니다.

8.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22,23절 등 그 후에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도 역사적 사건과 퍼즐이 잘 맞아떨어집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국로마의 자리를 교권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북방왕은 교군로마를 지칭하는 것이 되지요. 왜냐하면 제국로마가 차지했던 그 위치를 차지했으니까요. 11장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말씀인데, 11장은 8장의 작은 뿔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확대하여 계시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8장의 작은 뿔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해석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8장도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고 그 네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자세히 계시하지 않고 네 나라가 나타난 그 어느 방향에서 얼굴이 엄장하고 궤홀이 능한 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홀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단8:23,24) 이것이 21절과 그 이하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8장에서도 제국로마는 경과적으로만 언급했지요. 이것은 다니엘서의 계시가 로마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제국을 발판으로 슬며시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작은 뿔에 대하여 자세히 보여주려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그보다는 자세하게 계시하면서 구주가 탄생하는 사건까지 제국로마의 역사를 계시하고 그 후에는 교권로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8장과 잘 조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의 이 설명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동의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요.

9. 예, 목사님, 저도 거의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장의 작은 뿔이 교권로마에 대한 것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교회 해석도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의 해석과 11장에 그 장면에 대한 계시의 이해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답: 고맙습니다. 잘 연구해보세요. 이제 22,23절로 넘어가봅시다.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하겠지요.

[단11:22~24]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 주며 모략을 베풀어 열

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10.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22절인데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예언이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지요?

답: 21절을 교권로마의 출현으로 이해하면 역사적 사건으로 이 구절이 이루어진 것을 찾기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 “그”가 바로 교권로마이지요. 교권로마에게 넘치는 물 같은 군대, 즉 많은 군대가 패하였다는 뜻입니다. 물은 여러 민족과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계17:15에 해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권로마가 그 입지와 권세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물 같이 넘치는 군대를 패한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 작은 뿔에게 세 뿔이 뿌리 채 뽑히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문자적으로 설명 예언한 것입니다. 7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상기하기 위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교권로마에 의하여 패하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반달스, 헤를리, 동고트의 군대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동맹한 왕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요. 이 말은 “브리트”인데 문자적으로 “언약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언약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권로마에 의하여 파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패한다는 말이 “샤바르”인데요, 깨뜨린다, 부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부친바 된다는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수행하시는 타미드를 제하고 작은 뿔이 차지한다는 8장 10절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지요. 정말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속죄사업을 작은 뿔이 차지함으로 언약의 왕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세력이 저지르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교권로마의 행사는 구주의 속죄의 봉사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11. 예, 8장 사건과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군요. 이제는 23절 말씀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요. 11장은 8장 사건을 확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퍼즐이 잘 맞는 것이 당연하지요. 23절은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언약의 왕입니다. 즉 교권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와 약조했다는 말입니다. 약조라는 말은 “하바르”인데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권로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지요.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것은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그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비유적으로는 결혼으로 결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아내로서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세력이 확장된다는 예언입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치에 섰으니깐 약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런 교권로마를 아주 신성하게 여기면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속임이 교묘하다는 말이지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겸손하게 자아를 굴복시키는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교묘한 속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7:15인데요, 목사님이 읽어보시지요.

[마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양 인줄 알지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이 소리를 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으니깐, 우리말 성경에는 양의 털이라고 번역했고 구역에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옷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엔뒤마는 외투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감추는 옷이지요. 그러니까 양의 털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요. 이렇게 양의 털을 썬으면 소리도 행동도 양처럼 하려고 아주 조심할 것입니다. 멋진 연기, 회중이 완전히 속을 수 있는 연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잘 가르쳐주어서 속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고후11:13~15 절입니다.

[고후11:13~15]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홀의 역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맙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요. 일꾼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말 의의 일꾼인 줄로 알지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오직 성경에 의하여 이런 것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라고 이런 역사적 예언을 친절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2.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시로 가르쳐주셨으니 아무쪼록 성령을 깨닫게 하셔서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